

# 광주시 'AI 인재양성' 속도 낸다



강기정(오른쪽 두번째) 광주시장이 8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정성태 전남대 총장, 김욱현 (주)아이코어엔씨 대표와 광주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기업혁신을 위한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양성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 市·전남대·구글 클라우드 업무 협약... 학생 30명 8월까지 교육 NHN 연구개발센터 개소...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등 중점 추진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시가 구글·NHN 등 세계적 기업들과 협업체인 인공지능 인재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전남대학교, 구글 클라우드의 공식 교육 파트너인 (주)아이코어엔씨와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구글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한 정성태 전남대학교 총장, 강형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대표, 김욱현 (주)아이코어엔씨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양성 교육에 따른 상호 협력 ▲교육생의 인공지능 및 신기술-첨단분야 취·창업 지원 ▲신기술-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활동 협력 ▲기업 혁신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및 포럼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구글 클라우드와 협정한 '인공지능 협업모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당시 강 시장과 정 총장 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참석한 뒤 실리콘밸리 구글 본사를 방문해 광주시와 구글의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구글 클라우드 측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등 협업모델을 제안했다.

이후 광주시와 전남대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4월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구글 클라우드 기반 AI 인재양성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첫 교육생 30명을 선발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16주간 진행하며, 교육과정은 온라인 기본교육(6주), 오프라인 기술교육(9주), 피칭 및 네트워킹(2일) 등이다.

광주시와 전남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지역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증진,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날 국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수

행사인 엔에이치엔클라우드(NHN CLOUD)는 상무비즈니스센터 4층에 연구개발센터를 개소하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연구개발센터는 820㎡ 규모로 60여명이 근무하며, 앞으로 상주직원이 180명까지 확대된다.

센터에는 본사 파견 인력은 물론 지난해 9월 개소한 엔에이치엔(NHN) 아카데미에서 7개월 간 웹개발자, NHN 인증과정을 수료한 지역 전문인력도 함께 근무한다.

연구개발센터는 지역거점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게임·핀테크 등 엔에이치엔(NHN) 그룹사 개발 업무를 비롯한 국산 AI반도체 클라우드로 전환,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진단 지원 서비스 개발 등 인공지능(AI) 응용기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엔에이치엔클라우드 관계자는 "이번 광주연구개발센터 개소를 통해 지역거점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 노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교육 컨트를 타워의 한 축을 맡아 광주 청년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사다리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 농수특산물 69만달러 수출계약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김·건어물·천일염 등

전남도가 농수산식품의 신규 시장 개척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최근 '2023 싱가포르 국제식품박람회(FHA)'에 참가해 69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에 전통 건축양식을 적용한 부스 디자인으로 '전라남도 통합 홍보관'을 설치해 참가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김, 유자, 건어물, 김치, 장류, 천일염 등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품을 활용한 대표 수출기업 14개사가 직·간접으로 참여해 총 304건의 구매자 상담을 진행, 전남 농수산식품 기업을 홍보하는 등 남도 음식을 케이푸드(K-Food) 대표 브랜드로 알리는 데 집중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분부는 실효성 있는 구매 상담을 위해 현지 유통 구매자 12개 사를 사전 섭외해 수출 상담을 주선하는 등 현장 상담이 실제 수출로 실현되도록 주력했다.

그 결과 유기농 차 가공식품 수출기업 보향다윈

이 50만 달러, 조미용 천일염 수출기업 해어름이 15만 달러, 유자 가공식품 수출기업 에덴식품영농조합이 4만5000달러의 수출계약을 했다.

또 건어물 수출기업 (주)아라움이 50만 달러, 김치 수출기업 신세계F&B가 40만 달러, 장류 수출기업 고려전통식품이 37만 달러의 수출 업무협약을 했다.

특히 (주)아라움은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해 판매하는 크리스피 스낵에 대한 중국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형 유통 구매자의 수출 문의가 이어지면서 입점 조건과 수출 가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장류 식품명인 기순도 명인의 고려전통식품이 싱가포르 스타 셰프 페트리나 로(Petrina Loh)가 운영하는 모즐즈(Morsels) 레스토랑에서 현지 언론과 식당 관계자, 유관기관 등을 초청해 명인의 '장'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 시식행사를 진행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광주 일반고 위탁교육생 하루 식비 3300원"

#### 임미란 시의원 "현실화 필요"

광주시의회 임미란(민주·남구2) 의원은 8일 "광주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의 식비가 하루 3300원에 불과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에서 예결위 결산 검토 보고를 통해 직업 위탁교육생들의 급식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올해 본예산이나 1차 추경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18살에서 19살, 가장 식욕이 왕성한 시기 청소년들이 적은 식비 때문에 편의점 등에서 컵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나"고 질타했다.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생은 일반고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졸업 후 취업을 원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이점선 교육감은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 위탁교육생의 급식비를 학교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급식비 3300원에 학교 무상급식비 3760원을 추가해 1인당 7060원의 급식비를 6월부터 당장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시설거주 장애인 홀로서기 지원

2026년까지 매년 20명씩 일자리·의료·여가 등

광주시가 시설거주 장애인의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계획을 수립해 2026년까지 매년 20명씩 총 8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주택에 살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

광주시는 자립의 가장 기본적인 주택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도시공사와 협업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민관합동 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인별 지원계획 적정성을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할 뒤 안전, 일자리 참여, 의료, 문화·여

가, 인권 보장 등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광주지역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맡는다.

전문성을 갖춘 자립조사원이 현재까지 18개 장애인거주시설 53명의 장애인에 대해 자립 준비 및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했으며, 이후에도 시설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육구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남주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주택 확보, 복지서비스 제공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초교 '생존수영' 실기수업 강화·인프라 필요"

#### 박미정 시의원, 본회의 시정질문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된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수업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실기수업 강화와 거점수영장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미정 광주시의회(민주·동구2)은 8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초등학교 10차시의 생존수영 교육시간 중 실기수업은 5차시에 불과하다"며 "이 정도 실습으로는 생존수영 능력이 고사하고 물과 친해지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 초등학교 154곳 중 살레시오초

교와 광주교대 부설초교 등 2곳만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1955년 시운마루호 침몰사고 이후 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수영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여 개씩 총 200여 개의 학교 복합시설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원 예정인 만큼 국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시교육청에 제안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릇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 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